

따뜻한교회

The Warm Community

2026년 9월 20일

따뜻한교회

따뜻함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만질 때 그 자리에는 회복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온기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김재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강원노회 소속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243 3층, 서림재
유튜브 <춘천 따뜻한교회>
인스타 <the_warm_community>

따뜻한교회 예배 순서 인도자 : 김재현 목사

1.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초대	인도자
성경 교독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30절>	다같이

2. 우리의 응답

응답 찬양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1. 입례 2. 시편 8편	다같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같이

3.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우리를 향한 말씀 열왕기하 5장 8-14절	담당자
목회 기도	말씀 앞에 드리는 기도	목회자
설교	들리는 말씀 "진짜 주인공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목회자
성찬*	보이는 말씀 <영원한 사귐으로> *성찬은 매월 첫 주입니다. 세례(입교) 교인이 참여하며 다른 분들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4. 우리의 응답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봉헌	그래서 우리를 드립니다 헌금함은 출입구 옆 비치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 별도의 헌금 순서는 없습니다.	다같이

5. 하나님의 보내심

소식	공동체의 삶을 나눕니다	인도자
삶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같이
강복 선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회자

예배를 위한 안내

마태복음 11장 28-30절, 우리말성경

인도자 :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회　중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다같이 :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열왕기하 5장 8-14절, 우리말성경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9.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10.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11.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12.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13.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14.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사도신경, 새번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식

1. 식사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